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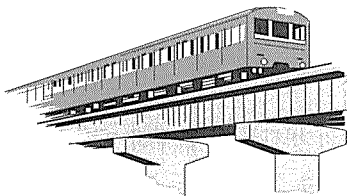


여가와 여행



임 경 애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편집국장 〉



『산』 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생활이 편리해지면 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긴장과 불안감은 가중되고 이는 현대인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인은 자칫 의욕을 상실하고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한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온다.

생활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 긴장을 풀고 갈등과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싶은 것은 아마 이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본능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금전적인 여유만 생기면 생활의 궤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아무 목적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불현듯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

아마 전축의 판에 그어진 선을 따라 돌아가던 바늘이 어떤 충격으로 선상에서 벗어나듯이 생활의 틀에서 일탈(逸脫)을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틀에서 벗어나는 방법중의 하나가 여행을 떠나는 것일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해방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즐겁게 한다.

먼저 가려고 인간힘을 쓸 필요가 없고 이기려고 다툴 이유가 없다. 평소의 안정적인 생활리듬을 깨고 낯선 곳을 찾아 나서는 일종의 방랑이기 때문에 다소의 불안감이 수반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더 유혹적이고 방랑심리가 오히려 감상(感傷)에 젖게 한다.

한가로운 주말 시외버스에 올라 아무 데나 마음 내키는 곳에서 내려본다. 우연히 초라한 시골장터를 만나게 되면 더욱 반갑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좋다. 도시에서의 휘황찬란한 쇼핑센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소박하고 꾸밈이 없어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고 내 지나온 과거를 회상할 수 있어 더욱 마음이 끌린다.

특히 시장끼를 느끼고 장터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먹은 음식이 기대 이상으로 맛있을 때 나는 행복하기까지 하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은 문명세계에서 벗어나 자연에 파묻히고 싶어한다. 그래서 휴가철이면 너도나도 도시를 벗어나 산으로 바다로 떠나기 위해 몇시간이 걸리건 간에 교통체증 짙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여행자의 마음을 자극한다.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든다. 늘 보아왔던 것도 새롭게 느끼게 하고 의미도 새로워진다.

흐르는 강물도 예사처럼 안보이고 흙 내음 풀 내음 바다 내음이 물론 풍기는 싱그러운 자연의 공기가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누군가가 여행을 통해서 인생과 세상을 조망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낯선 환경과 사물을 통해 사고(思考)의 깊이를 더하고 경험의 현장에서 나의 존재를 세삼스럽게 깨닫는 동시에 심신을 새로이 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간다면, 여행은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세상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길을 떠난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큰 감동이 아닐 수 없다.

세계는 하나의 책이며,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쳐보는 것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여행은 분명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무료함과 권태감에서 벗어나 신선감과 호기심을 달래주는 모미를 가지게 한다.

갈증이 날 때 한모금의 물이 우리의 심신을 달래주듯이 여행은 생명이 있는 한 끊임없이 갈구하는 새로운 것,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기대 심리를 달래주는 방편이 된다.

낯선 고장의 낯선 거리에서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보며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을 되새겨 보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인상깊게 각인된 낯선 풍물들은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고, 추억은 역시 아름다운 기억들을 사진첩처럼 간직하고 음미할 때 마음의 풍요로움과 생활속에 여유를 가져다준다.

해가 갈수록 여가를 이용해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목적지 없이 떠나서 발길 닿는 데로 가는 것이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한다.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방랑의 기쁨, 유희와 모험심이 있다. 방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무가 없고, 때도 없으며, 의지할 필요도 없고 엿보는 이웃도 없다.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다만 가야할 곳을 알지 못하는 나그네의 길이다.

좋은 나그네는 올 곳과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친구(知人)의 이름조차 모른다.」

「방랑의 정신이 있어야 여가를 이용하여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러한 나그네는 사람의 인기척이 드문 곳, 참다운 고독을 맛볼 수 있는 곳, 자연과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어한다.」 林語堂의 말이다.

여행자의 심리를 잘 갈파한 석학의 글 속에서도 길을 떠나는 사람의 독특한 맛과 기쁨과 정취를 가득히 느끼게 된다.

추석이나 설은 우리 고유의 큰 명절로 명절 때면 고향을 향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서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고속버스나 기차를 이용해서 고향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고향으로 간다는 설레임으로 들떠 있고 마냥 즐거워 보인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본능의 발로일까.

정처 없이 떠나는 여행자의 심리는 역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 헤메는 한가닥 귀소본능의 발현일 것이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직장과 사회에서의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과 장벽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내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서도 전혀 내 뜻과는 다른 일에 매달려서 심신이 피로한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어디든지 떠나려고 하는 심리를 자극한다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어디론가 제 갈길을 가고 있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곳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꾸준히 쉬지 않고 그들은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출발지점이나 목적지점이 어디이든 그 과정은 가슴 설레이는 여행이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색채를 가지고서든,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 간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행은 항상 새롭게 넘쳐흐르는 맑은 샘물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신선한 자극이 되며, 살아 있다는 기쁨을 확인하게 한다.

언제 또 답답한 도시에서 탈피하여 자연의 싱그러움 속에서 떠나온 기쁨, 목적없는 방랑의 유희에 심취해서 시간의 여유로움과 공간의 한적함을 자적(自適)할 수 있을까... ♪